

[특집]

## 노인 일인가구 현황 및 노인사목의 과제\*

■  
한 정 란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

인구 고령화

노인 일인가구의 실태

노인 일인가구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과제

---

### 인구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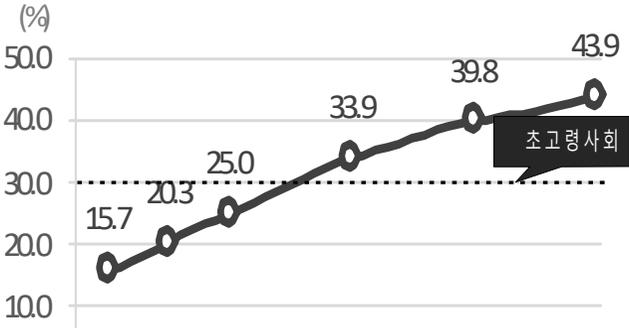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구 현상이다.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 근대화 및 정치 민주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에 힘입어 경제적 성장과 과학 및 의료 기술의 발전, 생활환경 및 보건상태의 개선, 대규모 전쟁 등 사회불안 요소의 감소 등은 자연스럽게 수명 연장 및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몇몇 서구 선진국에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2020년 10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04,408명 중 65세 이상 고령

---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인구는 8,125,432명으로 15.7%에 이른다.<sup>1)</sup>



[그림 1] 고령인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019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인구 고령화는 비단 사회 전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교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톨릭교회 내 고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보다 최소 4~5% 가량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sup>

‘인구 고령화’는 고령인구 즉 노인이 증가하여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며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에도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한정란(2015)은 인구 고령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과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실 자체이자 실제 사회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019.

2)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3) 박은미, 시니어의 역할 전환을 모색한다, 『가톨릭 평론』, 25, 41~48, 2020.

강조하였다.<sup>4)</sup>

인구 고령화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가 안정되고 의료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진행되는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막을 수도 또 막아서도 안되는 변화이며, 인구 고령화 그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도 부정적인 변화도 아닌 그저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사회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오랜 시간 인류가 꿈꿔온 장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나큰 노인부양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재앙과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정란(2015)<sup>5)</sup>은 인구 고령화의 정확한 의미와 그로 인한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그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표 1]과 같이 인구 고령화를 사회적·양적 고령화, 사회적·질적 고령화, 개인적·양적 고령화, 개인적·질적 고령화의 네 가지 측면과 그 각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표 1] 고령화의 입체적 분석

	양적 고령화		질적 고령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사회적 고령화	사회적·양적 고령화		사회적·질적 고령화	
	장수의 실현	사회적 부담	실버 파워	집단지기주의
개인적 고령화	개인적·양적 고령화		개인적·질적 고령화	
	제2의 인생	노후비용	노후 삶의질	역할 없는 역할

출처: 한정란, 『노인교육론』, 학지사, 2015.

4) 한정란, 『노인교육론』, 학지사, 2015.

5) 같은 책.

먼저 사회적 고령화는 사회 전체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의로,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와 고령층의 질적인 변화라는 두 측면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양적 고령화는 사회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 사회적·양적 고령화의 긍정적인 의미는 인류의 오랜 열망이었던 장수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로마시대의 평균수명은 어림잡아 25세 정도였으며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50세도 채 되지 않았으나,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3.2세<sup>6)</sup>이며 최빈사망연령은 2018년 88세<sup>7)</sup>에서 2020년에는 90세로 예측되어,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양적 고령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령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과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노동력 부족과 사회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인구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의 향상, 즉 사회적·질적 고령화를 수반한다. 거대 인구층이 된 고령층은 참정권을 지닐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그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질적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영향력 증가는 긍정적 측면이지만, 이들이 막강해진 사회적 권력을 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즉, 사회적·질적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은 고령층의 집단이기주의나 세대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고령화이다. 개인적 고령화 역시 수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양적 고령화의 측면과 노년기의 중

6)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019.

7) 통계청, 『안전생명표』, 2018.

요성 증가라는 질적 고령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양적 고령화는 개인의 수명 연장으로 긴 노년기를 통한 제2인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20년 현재는 83.2세<sup>8)</sup>로 지난 50년 사이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시간은 21.3년 더 길어졌다. 과거 만 60세인 환갑만 넘겨도 장수를 축하했던 시대와 달리, 2018년 현재 60세의 기대여명은 25.2년<sup>9)</sup>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계획해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긴 노년기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노년기의 연장은 공식적인 직업에서 물러나 연금이나 자산 소득 또는 사적,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노년기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연장은 개인적 노후비용의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개인적 삶의 질적 차원에서 볼 때 노년기의 연장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노년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적·질적 고령화는 생산과 양육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도 대비가 없다면 재앙일 수밖에 없어서, 준비 없는 노후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역할 없는 역할과 무위(無爲)로 인한 고통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또 부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으며, 그 결정권은 어떤 시각으로 노년을 바라보고 노화를 받아들이며, 노화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대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기 이후 폭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이른바 “베이비붐(baby-boom)”이 뒤늦게 진행되었고, 근면한 한국인의 저력 덕분에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8)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019.

9) 통계청, 『안전생명표』, 2018.

경제대국으로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의 노화와 경제성장의 정점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이른 바 “압축적 고령화”를 겪게 되었다.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17년만인 2017년에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0)</sup>.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현재의 고령인구의 비율이나 숫자보다는 압축적 고령화라고 하는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sup>11)</sup> 압축적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고령화에 맞춰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구조를 서서히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인구의 변화 속도를 사회의 대응이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위기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박은미(2020)<sup>12)</sup>는 가톨릭교회 내 고령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더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이 될수록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종교적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은 고령층이 미사 등 종교행사에 참여할 확률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가톨릭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령층의 요구나 특성에 맞춘 사목활동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재영(2008)<sup>13)</sup>이 지적했듯이, 종교는 노인들에게 삶의 실존적 의미를 제공하고, 마음의 평화와 안녕을 주며, 생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특히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파편화된 현대 고령사회에서는 지역사회 교회가 노

10)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11) 한정란, 『노인교육론』, 학지사, 2015.

12) 박은미, 시니어의 역할 전환을 모색한다, 『가톨릭 평론』, 25, 41-48, 2020.

13) 이재영,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천주교회 노인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가톨릭사상』, 37, 1-37,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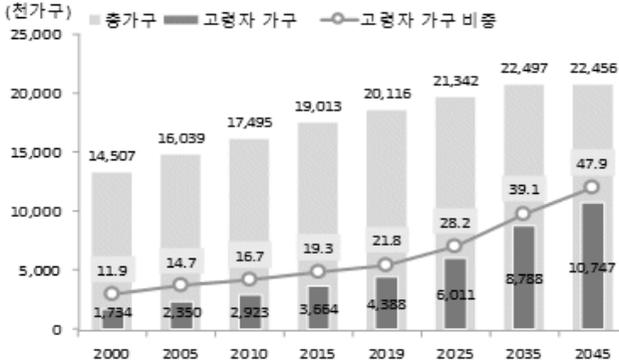
인들의 삶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들이 더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 본당의 사목활동에서 고령신자들을 위한 사목에 관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노인 일인가구의 실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가족 구성 및 형태의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부모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조손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이나 학업,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분거(分居)가족이나 일인가구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단일민족국가의 정체성이 무색할 만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민 등의 유입 증가로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기본적인 ‘가족’ 개념과 가치관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sup>14)</sup>

특히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젊은 층의 부모부양의식 감소와 핵가족화의 증가 그리고 비혼 및 만혼 증가로 인하여 전체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00년 11.9%에서 2005년 14.7% 2010년 16.7%, 2015년 19.3%, 그리고 2019년 21.8%로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계속되어 2045년경이면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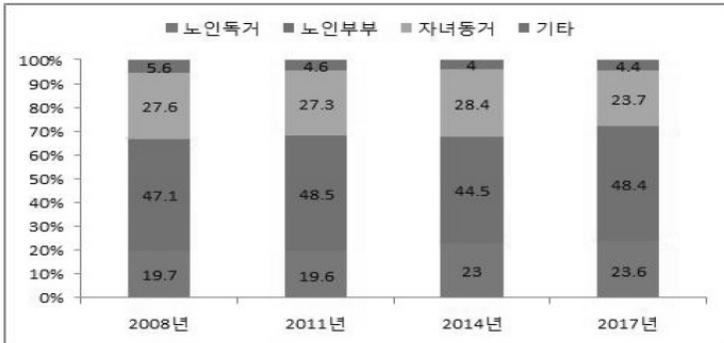
14) 경동현, ‘1인 가구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가정사목 연구: 가족 공론장의 변화와 교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33, 157~184, 2018.



[그림 2] 고령자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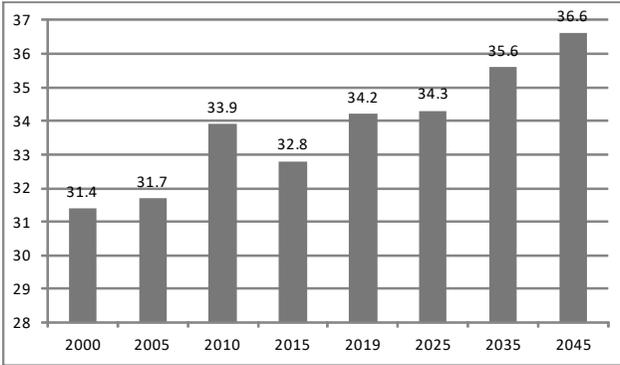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통계청, 2020.

한편, 고령자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인 일인가구 즉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자녀 동거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현재 전체 고령자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 19.7%, 2011년 19.6%, 2014년 23.0%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00년 고령자 가구 중 31.4%가 일인가구였던 데 반해, 2019년에는 34.2%가 일인가구이며,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6.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 참조).



[그림 3] 고령자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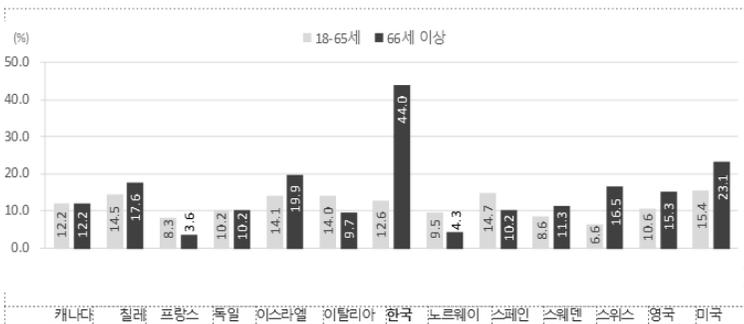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실태조사』, 2017.



[그림 4] 고령자 가구 중 일인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2019.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노인 일인가구의 증가는 현 세대 고령층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가 그만큼 많아질 위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0%로 OECD 국가 중 월등한 1위라는 사실은 노인 일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7)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0.8.19. 기준)

본고에서는 노인 일인가구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 분석해 보았다. 우선, 노인의 주거형태를 노인독거, 부부동거, 가족 동거 및 기타로 나누어 평소 건강상태, 우울, 인지기능, 삶의 만족도(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친구 및 이웃관계 만족도의 합), 본인 월 총 수입액의 차이를 one way ANOVA 및 Duncan 사후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 건강상태, 우울, 인지기능, 삶의 만족도, 본인 월 총수입액 등 모든 면에서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 건강상태는 일인가구 노인이 가장 안 좋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노인이었고,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다. 우울의 경우에도 노인 일인가구 노인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노인, 그리고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우울점수가 가장 낮았다. 인지기능은 노인일인가구 노인의 인지기능이 가장 낮았고, 자녀동거가구 노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인지기능이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친구 및 이웃관계 만족도를 합산한 삶의 만족도도 부부동거 노인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노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노인 일인가구 노인이 가장 낮았다. 또 본인의 월 총 수입액 역시 노인 일인가구 노인이 가장 적었고, 자녀동거가구 노인이 다음이었으며, 노인부부가구 노인이 가장 많았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건강, 정서, 인지, 경제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노인 일인가구 노인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주거형태별 건강, 우울, 인지, 삶의 만족도

(n=10300)

특성	구분	N	M	SD	F	Duncan's
평소 건강상태	노인독거	2416	2.77	.968	55.815***	a
	부부동거	4908	3.03	.986		c
	가족동거	2750	2.93	.980		b
우울	노인독거	2416	5.16	4.408	148.007***	c
	부부동거	4908	3.46	3.796		a
	가족동거	2750	4.27	4.069		b
인지기능	노인독거	2410	24.34	4.092	161.386***	a
	부부동거	4898	25.89	3.306		c
	가족동거	2746	24.78	4.258		b
삶의만족 도	노인독거	2416	12.17	2.633	85.531***	a
	부부동거	4908	12.97	2.602		c
	가족동거	2750	12.46	2.592		b
본인 총수입액	노인독거	2425	1082.53	926.15	18.881***	a
	부부동거	4980	1263.11	1556.47		c
	가족동거	2893	1106.05	1415.46		b

\*\*\*: p&lt;.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노인의 종교에 따라 주거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 주거형태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 노인 10,236명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3,988명 39.0%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2,741명 26.8%, 개신교 2,391명 23.4%, 가톨릭 927명 9.1%, 그리고 기타종교 189명 1.8%의 순이었다. 이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일인가구 노인 중 무교는 34.6%, 불교 28.0%, 개신교 25.4%, 가톨릭 10.3%, 기타종교 1.7% 순이었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34.6%)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65.4%)에 독거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전체 노인 중 종교가 있는 경우(61%)보다도 일인가구 노인 중 종교가 있는 비율이 65.4%로 더 높았다. 또 종교별로는 전체 노인 중 불교 신자 비율은 26.8%인데 반해 독거노인 중 불교 신자 비율은 28.0%로 더 높았고, 개신교 역시 전체 중 개신교 비율 23.4%인데 반해 독거노인 중 개신교 비율은 25.4%로 더 높았으며, 가톨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중 가톨릭 비율인 9.1%보다 독거노인 중 가톨릭 비율이 10.3%로 더 높

았다. 종교를 가진 노인이 홀로 살게 되는 것인지 반대로 홀로 사는 노인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인과관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종교를 가진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종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표 3] 노인의 주거형태별 종교

구분		무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기타	계
노인독거	N	839	679	617	251	41	2427
	%	34.6%	28.0%	25.4%	10.3%	1.7%	100.0%
부부동거	N	2069	1326	1060	423	102	4980
	%	41.5%	26.6%	21.3%	8.5%	2.0%	100.0%
가족동거	N	1080	736	714	253	46	2829
	%	38.2%	26.0%	25.2%	8.9%	1.6%	100.0%
계	N	3988	2741	2391	927	189	10236
	%	39.0%	26.8%	23.4%	9.1%	1.8%	100.0%
$\chi^2$		49.209***					

\*\*\*: p&lt;.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다음으로 조사대상 중 가톨릭 신자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평소 건강상태, 우울, 인지기능, 삶의 만족도, 본인 월 총수입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및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가톨릭 신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평소 건강상태, 우울, 인지기능,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 건강상태는 일인가구 노인이나 가족동거 노인에 비해 부부동거 노인이 더 좋았다. 우울은 일인가구 노인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우울점수가 가장 낮았다. 인지기능은 일인가구나 가족동거 노인의 인지기능보다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인지기능이 높았다.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친구 및 이웃관계 만족도를 합산한 삶의 만족도도 부부동거 노인이 일인가구 노인이나 가족동거 노인보다 높았다. 본인의 월 총수입액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일인가구

노인일수록 좀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가톨릭 신자의 거주형태별 특성 비교

(n=927)

특성	구분	N	M	SD	F	Duncan's
평소 건강상태	노인독거	251	2.77	1.007	7.164***	a
	부부동거	421	3.06	.979		b
	가족동거	245	2.89	.969		a
우울	노인독거	251	5.26	4.714	22.893***	c
	부부동거	421	3.12	3.653		a
	가족동거	245	3.78	3.706		b
인지기능	노인독거	249	25.41	3.600	14.204***	a
	부부동거	420	26.75	2.834		b
	가족동거	243	25.92	3.578		a
삶의 만족도	노인독거	251	12.45	2.672	9.267***	a
	부부동거	421	13.29	2.530		b
	가족동거	245	12.70	2.675		a
본인 총수입액	노인독거	251	1186.90	1027.755	.214	
	부부동거	423	1256.27	1359.878		
	가족동거	253	1229.86	1533.042		

\*\*\*:  $p < .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한편, 조사대상 노인 중 일인가구 노인들의 독거기간을 조사한 결과, 2,426명 독거노인들의 독거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73년으로, 10년 이하가 33.8%, 11~15년이 19.2%, 16~20년이 14.5%, 21~30년이 20.0%, 그리고 31년 이상도 12.4%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평균 독거기간은 17.17년(SD=11.011)이었다. 특히 가톨릭 신자인 독거노인들의 독거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63년으로 10년 이하 29.1%, 10~15년이 22.5%, 16~20년이 14.9%, 21~30년이 25.9%, 그리고 31년 이상도 7.6%였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6.83년(SD=9.3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의 이유가 무엇이든 독거가 상당히 장기화되어 있으며, 연로해질수록 독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인가구 노인들의 독거 이유와 독거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전체 조사대상의 경우, 독거의 이유는 본인이 경제

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 등 노인 본인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47.4%인 반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싶어해서, 자녀의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자녀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등 자녀로 인한 사유가 48.7%로 다소 높았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인 독거가구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 본인의 사유로 인한 독거는 34.0%인 반면, 자녀의 사유로 인한 독거는 63.8%로 나타나 본인이 아닌 자녀의 사유로 인한 독거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독거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으로 노인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독거가구 노인의 독거 이유와 독거시 어려움

(n=2426, 927)

구분		전체		가톨릭 신자	
		N	%	N	%
독거 이유	본인사유	1146	47.4	228	34.0
	자녀사유	1177	48.7	429	63.8
	기타	93	3.9	15	2.2
	합계	2416	100.0	672	100.0
독거의 어려움	없음	474	19.6	310	46.1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836	34.6	120	17.9
	일상생활 문제의 어려움	228	9.4	41	6.0
	경제적 불안감	323	13.4	116	17.3
	안전에 대한 불안감	38	1.6	6	.9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517	21.4	79	11.8
	합계	2416	100.0	672	100.0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다음으로 독거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의 경우,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점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라는 응답이 21.4%로 다음이었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9.6%, 경제적 불안감 13.4%,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9.4%, 안전에 대한 불안감 1.6%의 순이었

다. 반면에 가톨릭 신자인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점이 라는 응답이 17.9%,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11.8%, 일상생활의 어려움 6.0%, 안전에 대한 불안감 0.9%의 순이었다. 일반 노인들에 비하여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독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온 점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높게 나온 점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음은 주거형태에 따라 노인교육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주거형태별 노인교육 참여 여부

(n=10300, 927)

구분		노인교육 참여	노인교육 비참여	계	
전체 노인	노인독거	N	387	2,039	2,426
		%	16.0%	84.0%	100.0%
	부부동거	N	616	4,364	4,980
		%	12.4%	87.6%	100.0%
	가족동거	N	300	2,528	2,828
		%	10.6%	89.4%	100.0%
	계	N	1303	8931	10234
		%	12.7%	87.3%	100.0%
	$\chi^2$		34.710***		
	가톨릭 신자	노인독거	N	61	190
%			24.3%	75.7%	100.0%
부부동거		N	71	352	423
		%	16.8%	83.2%	100.0%
가족동거		N	38	214	252
		%	15.1%	84.9%	100.0%
계		N	170	756	926
		%	18.4%	81.6%	100.0%
$\chi^2$		8.424*			

\*: p<.05, \*\*\*: p<.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일인가구 노인 중 노인교육 참여자는 16.0%로 부부동거 가구(12.4%)나 가족동거 가구(10.6%)에 비

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도 일인가구 노인의 노인교육 참여율은 24.3%로 부부동거 가구(16.8%)나 가족동거 가구(15.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전반적으로 노인교육 참여율 면에서 조사대상 전체의 참여율 12.7%에 비해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율은 18.4%로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본당들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주거형태별로 노인복지관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 일인가구 노인 중 노인복지관 참여율은 12.8%로 부부동거 가구(9.1%)나 가족동거 가구(6.2%)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도 일인가구 노인의 노인복지관 참여율은 17.1%로 부부동거 가구(10.9%)나 가족동거 가구(5.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인가구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참여율이 더 높은 이유는 노인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전반적인 노인복지관 참여율 면에서도 조사대상 전체의 참여율 9.2%에 비해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율은 11.2%로 더 높았다.

[표 7] 주거형태별 노인복지관 참여율

(n=10300, 927)

구분		노인교육 참여	노인교육 비참여	계	
전체 노인	노인독거	N	310	2117	2427
		%	12.8%	87.2%	100.0%
	부부동거	N	453	4527	4980
		%	9.1%	90.9%	100.0%
	가족동거	N	175	2654	2829
		%	6.2%	93.8%	100.0%
	계	N	938	9298	10236
		%	9.2%	90.8%	100.0%
	$\chi^2$		68.145***		
	가톨릭 신자	노인독거	N	43	208
%			17.1%	82.9%	100.0%
부부동거		N	46	377	423
		%	10.9%	89.1%	100.0%
가족동거		N	15	238	253
		%	5.9%	94.1%	100.0%
계		N	104	823	927
		%	11.2%	88.8%	100.0%
$\chi^2$		15.968***			

\*\*\*: p<.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로 경로당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일인가구 노인 중 경로당 참여율은 30.3%로 부부동거 가구(22.1%)나 가족동거 가구(17.7%)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도 일인가구 노인의 경로당 참여율은 25.5%로 부부동거 가구(13.7%)나 가족동거 가구(9.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인가구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참여율이 더 높은 이유는 노인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노인교육이나 노인복지관과 달리 전체 경로당 참여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참여율 22.9%에 비해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율이 15.6%로 훨씬 더 낮았다. 그 이유는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 가톨릭교회나 관련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로당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8] 주거형태별 경로당 참여율

(n=10300, 927)

구분		경로당 참여	경로당 비참여	계	
전체 노인	노인독거	N	736	1690	2426
		%	30.3%	69.7%	100.0%
	부부동거	N	1102	3878	4980
		%	22.1%	77.9%	100.0%
	가족동거	N	501	2327	2828
		%	17.7%	82.3%	100.0%
	계	N	2339	7895	10234
		%	22.9%	77.1%	100.0%
	$\chi^2$		120.901***		
	가톨릭 신자	노인독거	N	64	187
%			25.5%	74.5%	100.0%
부부동거		N	58	365	423
		%	13.7%	86.3%	100.0%
가족동거		N	23	230	253
		%	9.1%	90.9%	100.0%
계		N	145	782	927
		%	15.6%	84.4%	100.0%
$\chi^2$		27.902***			

\*\*\*: p<.001

주: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raw data를 재분석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인가구 노인들은 부부동거 혹은 가족동거 가구 노인들에 비해 노인 평생교육기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외부 기관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돌봄이나 가사 등의 부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홀로 지내는 데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인가구 노인들이 평생교육이나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든 자유시간이 많기 때문이든 참여의 이유를 불문하고 독거노인들

의 사회활동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톨릭 신자 일인가구 노인들은 노인 평생교육과 노인복지관 참여에 특별히 더 적극적이었으며, 다만 경로당 이용은 일반 일인가구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렇듯 가톨릭 신자 일인가구 노인들이 사회의 일인가구 일반 노인들에 비하여 대체로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휴식활동이 대부분인 경로당보다 적극적인 학습 및 여가 활동이 더 많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가톨릭교회가 중요한 노인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 노인 일인가구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일인가구 시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고령자가구 역시 빠르게 일인가구화 되고 있다. 과거 자식이 곧 노후대비였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이며, 오늘날 노인 일인가구는 사회나 자녀의 선택일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점차 쇠약해지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연로해질수록 돌봄과 도움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본인의 의지나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려움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고 심지어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지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은 홀로 사는 부모님에게 언제든 즉각 달려갈 수 있는 형편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멀리 있고 바쁜 자식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볼 수 있는 이웃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웃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않은 않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본래의 종교적인 기능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웃이자 의미 있는 타자

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실제로 점차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 및 상담, 정보 및 생활자원 제공, 편의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점차 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공동체 및 신앙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애 위기사건들로부터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해석체계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죽음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15)</sup> 노인들 특히 홀로 사는 일인가구 노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지역사회 교회의 다양한 역할은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이웃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가 일인가구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가톨릭교회에서 노인사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평균보다 더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들을 위한 교회의 지속적이고 사목적인 배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가톨릭교회의 노인사목과 노인복지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영적인 보화를 통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16)</sup>

이에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노인 일인가구의 실태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노인 일인가구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 일인가구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즉 평상시보다는 질병과 같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닦쳤을 때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인가구 노인의 경우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도

15) 이재영,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천주교회 노인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가톨릭사상』, 37, 1~37,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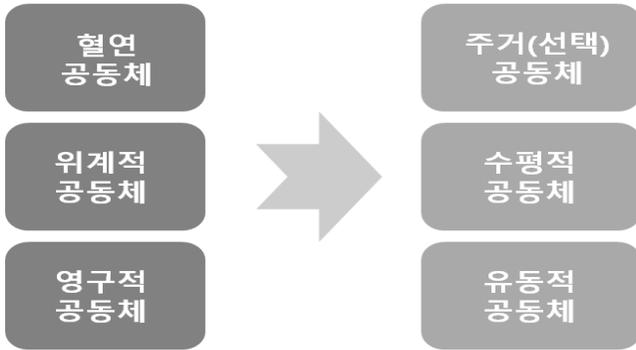
16) 최찬영,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움을 줄 누군가가 가까이에 없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지역 사회에 그들을 도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보건시설 그리고 병의원들이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그런 공적 서비스나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고 좀 더 긴밀하고 정서적인 돌봄에 대한 욕구가 더 절실하다. 앞선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이 토로한 어려움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라기보다는 가족처럼 좀더 가까이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인가구 노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신앙과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성이야말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지역공동체는 씨족공동체와 같이 혈연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서, 항렬에 따른 위계적인 특성을 지닌 영구적인 공동체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대신 개인들의 자율적인 주거선택에 따른 선택적 주거 중심의 지역사회가 등장하였다. 현대 지역사회(지역공동체)는 위계적이 아닌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 또한 매우 취약하다.

위계적 질서를 가진 혈연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던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혈연 공동체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대안은 신앙 공동체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의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 민주화 뿐 아니라 시민사회로의 성장과 공동체성 회복 등의 사회적 과제가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최근 지역공동체 특히 마을공동체

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새마을운동과는 달리, 주민 주도 그리고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본격적인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육아공동체 지원, 마을기업 육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sup>17)</sup>



[그림 5] 지역사회가 지니는 공동체성의 변화

이러한 마을공동체 복원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들 전체 혹은 대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주체의 발굴이나 참여 유도에는 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기본 개념과 취지를 본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로 끌어올 수 있다면, 최소한 본당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인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본당 공동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신심단체나 봉사단체, 구역·반 모임 등 본당 공동체

17) 참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조직의 방식에 변화가 요구된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연령이나 성별 등의 동질성에 근거한 공동체 구성에서 탈피하여, 구성원들의 요구나 필요, 그들이 지닌 자원 그리고 사목적인 목적에 근거한 공동체 재조직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와 같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구역·반 모임을 구성할 경우 어떤 반은 노인들로만 구성되거나 심지어 모두 일인가구 노인들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주고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신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 활력과 민첩성을 지닌 젊은 세대와 인생의 경험과 경륜, 지혜를 지닌 노인 세대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가진 자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동체 시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인가구 노인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에 다가갈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만남(접촉과 소통)과 활동 두 가지이다. 먼저 만남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 혹은 노인들끼리의 만남과 소통 뿐 아니라 다른 세대들과 노인들 간의 만남, 그리고 노인 평신도와 사제와의 만남 모두가 활성화된다면 일인가구 노인들이 지닌 외로움의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제안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은 물론이고 교회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이 더 오랜 시간 사람들 속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은퇴 사제나 은퇴 수녀들이 본당에서 노인 신자들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비율이 높은 본당일수록 더 많은 사목 자원을 투입하는 교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다. 통상적인 미사 외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노인대학, 상담(신앙상담 외에도 다양한 생활상담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특강, 전시회나 공연 등의 문화활동, 피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교회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한 노인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참여하는 활동 뿐 아니라 질병이나 이동성의 문제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말벗서비스, 생활도움서비스, 간병서비스, 방문치료 등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인가구 노인들 특히 가톨릭 일인가구 노인들의 경우 그 빈도가 더 심각한 문제로 조사되었던 경제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인들 간 후원연계나 노인 가정 결연, 지역사회 공적 복지자원들을 통한 자원연계를 위해서 교회가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직접적인 경제적 후원 외에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 주거나 본당 내에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일인가구 노인들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세대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성, 연령, 계층, 그리고 세대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회야말로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의 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단순히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세대들, 서로 다른 계층이 함께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활동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가능한 것이다. 노인 따로, 청소년 따로, 레지오 따로 식의 현행 본당 사목구조로는 교회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이재영(2008)의 지적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sup>18)</sup>

또한 한정란(2015)<sup>19)</sup>이 강조한 세대공동체 교육의 관점에서 어린

18) 이재영,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천주교회 노인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가톨릭사상』, 37, 1~37, 2008.

19) 한정란, 『노인교육론』, 학지사, 2015.

이와 노인, 청소년과 노인, 성인과 노인, 중년과 노인 등 2세대가 함께 하거나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이나 중년, 노인 등 3세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세대들이 지닌 장점과 자원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세대 간 차이점 뿐 아니라 세대 사이의 공통점과 유대감 즉 세대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순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점을 세대공동체 경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인가구 노인의 독거 이유는 다양하다. 자녀 등 노인 외적 이유에서 독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의 내적, 자발적인 이유에 의해 독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라도 얼마든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신만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을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의 결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적 접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점관점은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안녕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sup>20)</sup>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노인사목에서도 노인이 지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집중보다는 노인의 잠재된 능력에 주목하고, 일인가구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강점 및 장점을 더 주목하여 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강점관점에서 일인가구 노인들이 지닌 잠재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 내 노인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강점관점의 노인교육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모여 노인대학 학생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20) Weick, A., Building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in D. Saleebey(ed.), *The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1992.

램을 제공하는 여가 중심의 노인교육이 아니라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2018)<sup>21)</sup>이 제안한 것과 같이 ‘역량중심 노인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2018)이 제안한 노년기 핵심역량은 [표 9]와 같다.

[표 9] 역량기반 노인교육의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핵심역량	역량 의미	하위요소
노화적응 역량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자아정체성, 자신감, 자기 통제 및 절제, 감정 조절, 자기관리, 안전의식, 생활관리 능력,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등
자기개발 역량	자신의 역량 및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활동과 학습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시간관리, 여가관리 능력, 학습관리 능력, 목표 관리,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사회변화 적응 역량 (사회적응 역량)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노년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사회변화 이해, 변화 적응,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직업탐색 기술, 직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문제 해결력, 정보 탐색 능력, 문해능력 등
선배시민 역량 (사회참여 역량)	선배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와 후세대를 위하여 공헌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사회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정신, 세계시민의식 등
심미적 역량	문화예술 및 미적 가치를 창조·향유·감상·비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문화예술적 소양과 감수성, 미적 감각, 문화적 상상력, 공감 능력, 정서적 안정감 등
자아통합 역량 (영성 역량)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재통합함으로써 전인적 성장과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자기 진단, 자기 이해, 인생 회고, 의미의 재통합, 반성적 사고, 영성 등

출처: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고령사회 인생3모작 설계를 위한 노인교실(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8.

21)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고령사회 인생3모작 설계를 위한 노인교실(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8.

첫째,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노화적응 역량, 둘째, 자신의 역량 및 잠재력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활동과 학습에 필요한 자기계발 역량, 셋째,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노년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변화 적응 역량, 넷째, 선배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와 후세대를 위하여 공헌하는 데 필요한 선배시민 역량, 다섯째, 문화예술 및 미적 가치를 창조·향유·감상·비평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역량, 여섯째,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재통합함으로써 전인적 성장과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아통합 역량이 그것이다. 교회 노인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특히 일인 가구 노인들이 자신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여 삶의 의미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구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인 가구 노인 뿐 아니라 모든 노인신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일반 노인들까지도 그 안에서 노년기 생활 적응과 선배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노년기 과업을 달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경동현, '1인 가구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가정사목 연구: 가족 공론장의 변화와 교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33, 157~184, 2018.
- 박은미, 시니어의 역할 전환을 모색한다, 『가톨릭 평론』, 25, 41~48, 2020.
- 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고령사회 인생3모작 설계를 위한 노인교실(노인 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8.
- 이국환, 노인사목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재영,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천주교회 노인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가톨릭사상』, 37, 1~37, 2008.
- 조세희,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누리와 말씀』, 38, 7~56, 2015.
- 최찬영,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 통계청, 『완전생명표』, 2018.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20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실태조사』, 2017.
- 한정란, 『노인교육론』, 학지사, 2015.
- 한정일, 한국의 노인문제와 관련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Weick, A., Building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in D. Saleebey(ed.), *The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1992.

## 국문초록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가톨릭교회의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우리나라 총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1.8%에 이르고 그 중 31.4%가 일인가구이다. 따라서 교회 내 노인신자의 증가 특히 일인가구 노인신자들을 위한 사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인가구 노인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인가구 노인은 건강, 정서, 인지, 경제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부부동거나 가족동거 노인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했다. 둘째, 종교가 있는 노인들 중에 특히 독거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독거 노인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은 10.3%였다. 셋째, 전체 일인가구 노인의 평균 독거기간은 17.17년으로, 독거 상태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거노인은 노인교육과 노인복지관 참여율 모두에서 부부동거나 가족동거 노인보다 더 높았고, 가톨릭 신자 노인의 노인교육 및 노인복지관 참여율이 다른 종교 노인들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일인가구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안에서 신앙과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일인가구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목 자원의 투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일인가구 노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세대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인가구 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중심 노인교육’이 필요하다.

▶ 주제어: 노인 일인가구, 독거노인, 노인사목, 노인교육